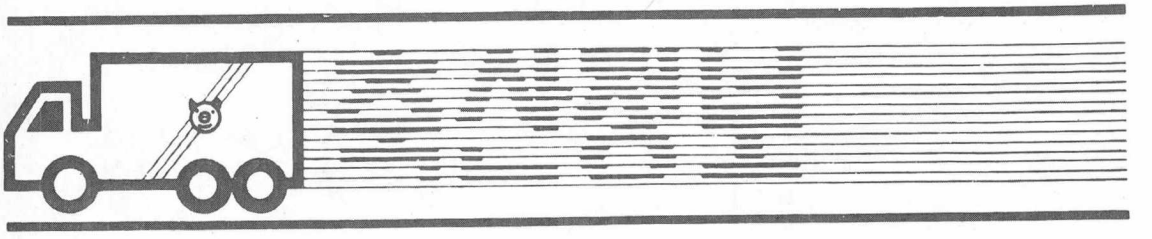

'96년도 축산발전사업 예산 716억원 증액 책정

농림수산부는 '9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을 승인('95.12.1)하면서 '96년도 축산사업비를 '95년도보다 716억원(7%)이 증가한 1조 1,217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축산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에서 8,72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2,083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368억원,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이 각각 지원되며 부문별로는 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에 4,323억원, 축산단지조성사업에 614억원, 가축계열화사업에 196억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182억원등 축산업구조개선 분야에 '95년도보다 162억원(2%)이 증가한 6,711억원을,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주요가축의 능력향상을 위한 가축개량분야에 474억원을, 냉장육·부분육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위생도축·도매·가공·판매시설과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유통개선 분야에 955억원을,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분야에 1,577억원을, 사료의 안정성 검사 등 사료품질향상 분야에 19억원,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에 92억원, 송아지생산 안정제도 사업에 900억원, 양축자금에 368억원 및 축산행정비 등에 12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 백화점 돼지고기 특별 할인 판매 실시

산지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의 수준에 머물면서 그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양돈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백화점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할인판매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충주시의 후생사 백화점의 경우 돼지고기 한근에 700원으로 한정 판매하여 지역 정육점 판매가격에 비하여 80%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랜드백화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정기 송년 바겐세일행사의 일환으로「우리농민돕기돈육특별판매」를 실시, 일반 시중가격보다 42.1%~58.3%까지 대폭 인하하여 판매, 1일 평균 100두분을 판매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돼지고기 불고기용을 근당 1,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진로유통은 불고기용 돼지고기를 일반시중가격보다 61.7% 저렴한 근당 1,380원(100g : 230원)에 판매했으며, 돼지 목살의 경우 시중가격보다 28.9% 저렴한 600g당 2,700원에 판매하는 등 초특가 세일을 실시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7일부터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부위별로 7~20% 가량 인하하였으며, 그레이스백화점도 평균 8%를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세부지침』마련

지난 12월 13일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5일 고시한『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료원산지표시제가 올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계의 사전준비 및 적응과 기존 포장재의 소진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국산 농수산물일 경우에는『국산』이라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는 원산지(생산지)국명과 원료함량 및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가 빈번히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서 국명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특정 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하여 동시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국명을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둘째, 원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생산국)가 빈번하게 바뀌어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최근 3년이내에 원산지 또는 함량 배합비율이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1년 동안 연 3회이상 원산지 표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가공품 생산업체로서 평균 4개월 동안에 1회이상 원산지 표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셋째,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도 생산국명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원료구입선 및 배합비율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포장재 제작이 어려운 경우로 하되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돼지고기 품질 개선 단지 지원사업요령」발표

정부는 비육용 돼지 출하체중의 규격화를 통해 고품질의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96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지원사업 요령」을 발표했다.

돈육품질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두당 5,000~7,000원/두씩 지급했던 지원금을 두당 3,000~5,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돼지출하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을 도체중의 경우(생체 100~115kg을 기준) 박피는 67~77kg, 탕박은 77~88kg이며, TLC검사에 합격하여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돼지, 숫돼지의 경우 거세한 돼지로 한다. 또 지원대상을 돼지고기품질개선단지 또는 축협조합을 통하여 육가공업체와 규격돈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단지농가는 현행 7천원에서 2천원이 삭감된 5천원 상당의 비육돈 후기사료, 단지 이외의 농가는 3천원 상당의 비육돈 후기사료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공업체와 품질개선단지나 농민들이 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96년 1월 20일까지 축협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은 해당사항을 수집하여 시.도지사에 오는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에 2월 10일까지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전문종돈업체 육성에 1,476억원 투입

정부가 지난 12월 6일 각단체에 시달한「종돈개량 추진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종돈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돈업체를 육성하여 종돈 자급도 및 양돈농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종돈능력검정의 내실화로 돼지개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개량도를 평가하여 이를 Feed-back시키는 기능을 확립하여 2001년의 돼지개량 목표를 달성하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종돈업 등록업체(GGP 농장 : 종돈 200두이상 사육농장, GP농장 : 종돈 50두 이상 사육농장)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476억원을 '96년부터 3년동안 투입하여 8개의 전문종돈업체를 육성, 2천년대 종돈소요두수의 40% 수준을 이들 전문종돈업체에서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며, 현행 실시되고 있는 종돈능력검정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96 축발기금에서 5억 7천만원의 보조를 받아 격리조기이유(SEW)방식에 의한 검정소 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 지원을 받은 전문종돈장은 원종돈장에서 생산된 자돈두수의 20% 이상을 검정소 검정 또는 농장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농장검정수수료(2천원/두)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돼지검정요령(장관고시), 종돈검정 세부 실시 규정(검정기관장 공고)등의 검정관련 규정등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개량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난 12월 12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가축개량사업 '95평가 및 '96 계획 협의회」에 토의된 바에 의하면, 96년 가축개량총괄사업 중 돼지개량사업 추진방향은 돼지 개량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돼지의 혈통등록 및 본등록, 검정소 검정 및 농장검정, 인공수정기술을 각각 확대보급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 돼지의 순수계통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돼지 인공수정 방법등의 신기술을 접목하기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회와 대한양계협회등에 전산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한편 가축개량기관간 전용회선의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편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축개량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 곡물수입계획 공개 않키로 결정

중국은 최근 자국의 곡물 수입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국제곡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자국의 곡물 수입계획을 공개하지 않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중국의 계획은 곡물수입계획을 공개하게 되면 즉시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주게될 뿐만아니라 자국의 해외거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9월말 기준) 밀과 혼합밀 7백만톤, 쌀 140만톤, 옥수수 260만톤 등 총 1천2백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일본 SG 회피 방안으로 민간 비축 시작

유럽연합(EU)는 지난 11월1일부터 발동된 일본의 세이프가드제발동에 의한 EU지역 돈육시황에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95년 2차 돼지고기 민간재고보조를 실시하였다.

EU가 이번 결정한 보조 내용을 살펴보면, 보관기간은 3~4개월로 대상물량의 상한기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전회 민간수매 비축량인 약 7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육시장에서 EU의 보조금액은 톤당 278ECU (약 27만8천원)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지역에서 대일본 돈육수출량은 월평균 1만2천톤으로 주로 덴마크산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EU지역 전체 소비량의 1%에 달하는 미미한 량이지만 돈육산업 관계자들은 이들 물량이 EU지역내 출하될 경우 전체 양돈시황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U 위원회는 수출보조금대상품목에서 제외했던 돼지고기(냉장,냉동포함) 부분육을 96년 1월 부터 다시 수출보조금대상품목에서 추가하여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시 수출보조금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미, 올해 돼지생산량 작년보다 증가할 듯

미국농무부 세계농업전망위원회(WAOB)가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미국의 96년 1/4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4,400백만파운드이며 2/4분기 생산량은 이보다 50백만톤이 증가한 4,450백만파운드에 이르고 3/4분기에서는 이보다 1.68% 증가한 4,525백만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량은 1/4분기에 1인당 12.7파운드를 2/4분기에는 13파운드를, 3/4분기에는 13.4파운드를 각각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Bar/gilt, Ia/Mn.기준) 판매가격은 1/4분기에 두당 41~43달러, 2/4분기에는 36~40달러, 3/4분기에는 38~42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다.

또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1/4분기에 165백만파운드, 2/4분기에 185백만파운드, 3/4분기에 185백만파운드에 각각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10월 돈육수입량 11만 5천톤으로 사상 최대

일본 대장성이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95년 10월 주요 식육수입량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월 한달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는 전월대비 143.7% 늘어난 11만 5천 13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월까지 일본이 수입한 돼지고기는 총 527,534톤(냉장육 144.384톤, 냉동육 383,15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0.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대만에서 237,416톤(냉장육 74,221톤, 냉동육 163,195톤)을 수입하여 전년동기대비 23.4% 늘어났으며, 덴마크에서는 132,045톤(냉장육 204톤, 냉동육 131,841톤)을 수입하여 전년동기대비 18.6% 늘어났으며, 미국에서는 92,977톤(냉장육 63,609톤, 냉동육 20,380톤)을 수입하여 전년동기대비 59.9%가 늘어났으며, 카나다에서는 28,879톤(냉장육 3,764톤, 냉동육 25,115톤)을 수입하여 전년동기대비 19.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료원료 수입 증가로 국제가격에 영향

일본경제신문 11월 23일자에의하면,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 대두를 역수입해 온 중국이 대두밀 수입에도 나서 12월까지 인도에서 수만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번 시즌에는 순수입국으로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국내의 축산물소비 확대에 따라 사료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피시밀등 다른 사료원료의 구매도 활발해 국제수급 압박은 물론 가격인상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1백만톤의 대두밀을 수출해온 중국은 지난 여름부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12월 선적용 인도산 대두밀 수입계약 수량은 5~6만톤에서 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남미산 피시밀, 미국산 옥수수, 대두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서비스 개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12월 8일부터 돼지

고기, 닭고기등의 축산물을 비롯한 35개 수출전략품목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를 자료화하여 농림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수산물 무역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개시된 서비스에는 국내외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동향, 수출입동향 등의 실제 발생되는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으로 지정

일본 후생성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일본수출국 공적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식품의 대일 수출시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검사를 받아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일본의 검역소 통관시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식품 등의 대일 수출시 통관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신문사

육류수출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는 지난 12월 20일(수) 오후 1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WTO체제하의 육류 수출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97년 7월 수입개방을 앞두고 양돈과 양계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육류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 개선방안 마련, 축산물의 완전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하는 한편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비 절감, 육질고급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동·물·약·품·도·매·전·문

국·내외 약품일체 완전구비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통의 KNOW HOW를 가진 (주)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적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주)협성가축약품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본사 : 967-8779/964-4870
●청량리영업소 : 965-9778
●FAX : 960-1894